

# 윤병태 나주시장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하겠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방문  
오영국 핵융합연구원장 만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추진  
나주 입지적 장점 인프라 설명

윤병태 나주시장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핵융합연구원)을 찾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최근 오영국 핵융합연구원장을 만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기간 추진 노력과 입지적 장점, 산·학·연 인프라 현황 등을 설명했다.

나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발전소 개념이 아닌 향후 본격적인 상용화(발전)에 필요한 인공태양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실증하기 위한



윤병태 나주시장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기간 추진 노력과 입지적 장점, 산·학·연 인프라 현황 등을 설명했다. 나주시 제공

시설이다.

인공태양이란 바닷물 속 수소를 원료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대용량

의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무한 청정에너지 생산 장치다. 수소 1g으로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

갈되는 화석연료 대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꿈의 에너지원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연료공급을 중단하면 즉시 가동이 멈춘다는 점에서 폭발이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전남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협력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을 선점해 추진하고 있다.

이어 올해 5월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근거를 마련했고, 6월 인공태양 관련 주제로 ‘2024년 매경·컨텍 포럼’을 개최했으며 국가대형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전남도-나주시·한국가속기및플라즈마연구협회 업무협약

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8월엔 인공태양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출범해 인공태양 관련 기업 육성과 정책 개발에 힘쓰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시장은 “나주는 120만㎡ 규모 에너지국가산단, 40만㎡ 규모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인공태양 연구시설 최적지”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가 글로벌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융합 에너지연구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 농업기술보급 실증·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소득작물·스마트팜 등 성과 발표

나주시는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기술보급 실증·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회는 시범사업 대상 농업인을 비롯해 품목별 농업인, 전남대 대학원생, 농협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과수, 소득작물, 식량작물, 과학영농, 스마트팜 5가지 분야에서 추진한 성과발표와 우수 농가 현장 견학 및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과발표에서는 △배 무봉지 재배 실증 시험 사업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 구축 시범사업 △배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유용미생물활용 박과류 선충 방제 및 딸기 품질향상 실증 시범 사업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소개됐다.

특히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 시범사업’은 자동 무인 방제 기계를 설치해 적기 방제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방제시간을 줄일 뿐 아니라 경사지나 기존 방제기 접근이 어려운 공간까지 방제가

가능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약 노출로 인한 피해 감소로 농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농업인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유용미생물을활용한 실증시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유용 미생물 5종을 멜론과 딸기에 처리해 그 효과를 검증한 사업으로 멜론(품종 하미과)은 8.3% 중량 증가, 딸기(품종 설향)는 8.6% 경도 증가로 인해 저장성과 식감이 향상됐다.

현장건설링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속기관정단의 경우 ‘나주배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참여농가(신화, 창조배) 유통에 적합한 수확 적기를 안내해 참여 농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회에 참석한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올해 실증·시범사업의 추진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상변화와 인력절감에 대처하는 실증 및 시범사업을 수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약 36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20개의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 제5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역할 수행

나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사협은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 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 복지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읍면동 지사협 전체 위원 330명을 대표해 20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새롭게 출범한 제5기 지사협은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신규 위원들과 맞춤형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

로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강연은 김영철 송정1동 지사협 민간위원장이 맡아 협의체의 다양한 활동 사례와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특히 기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복지 공공서비스의 기획과 운영까지 함께해야 한다”며 협의체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환경국을 신설하고 복지 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 개편했다”며 “이번에 위촉된 제5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 주도형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성장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 수출 개척단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현지에서 농수산물 수출협약 및 판촉·홍보 활동을 벌인 가운데 캐나다 현지 슈퍼마켓서 농수산물 판촉행사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나주시 우수 농수산물, 캐나다 첫 수출시장 개척

‘팬아시아푸드’와 400만불 협약

나주시가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18일 나주시는 안상현 부시장과 지역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수출 개척단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현지에서 농수산물 수출협약 및 판촉·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캐나다 수출 개척단은 안상현 부시장, 이상만 시의원, 이동희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임봉의 나주시농협살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와 최인영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 한운경 ㈜대한식품, 방관혁 삼진

GF 등 관내 농수산물 업체 대표, 시 공무원 등 8명으로 꾸려졌다.

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난 15일 캐나다 현지 유통업체인 ‘팬아시아푸드(Pan Asia Food)’와 400만불(한화 약 55억 7000만원) 규모 나주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팬아시아푸드는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토론토에 대형 슈퍼마켓 4개소를 직영하면서 중국마켓 등 현지 마켓에도 한국 식품을 활발하게 유통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우수 농수산물 품질 향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써 온 결과 캐나다를 포함해 6개국과 3270만 불(약 455억원) 규모 농수산물 수출협

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 부시장과 일행들은 수출협약과 더불어 팬아시아푸드 직영 마켓 4곳, 중국마켓 2곳에서 나주배, 쌀, 배추, 누룽지, 김 등 우수 농수산물 홍보·판촉 행사도 진행했다.

또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권태한 부총영사와 만나 농수산물 수출 및 문화·관광산업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방문 일정엔 캐나다 호남향우회 흥술 회장과 향우회원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나주 농수산물 판촉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 제18회 나주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나주시는 지난 14일 나주종합스포츠타크에서 ‘제18회 나주시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성료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게이트볼 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14팀 120여명이 참가해 읍면동 분회별 예선경기를 시작으로 결승까지 펼쳐졌다.

경기 결과, 동강A분회가 2년 연속우승 차지했고 영산분회가 2위, 송월A분회와 송월B분회가 공동3위, 반남, 왕곡중앙,

성북, 공산분회 4팀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게이트볼은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전략을 구사하는 두뇌 스포츠로,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내 교류와 친목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